

## 중등학교 남녀학생의 공수를 위한 생활관 실습 교육의 고찰

황 재 숙\* · 김 운 주\*\*

율량중학교\* ·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Exploratory Study of Resident Practice for Male & Female Students in the Secondary School

Hwang, Jae-Sook\* · Kim, Woon-Ju\*\*

*YulRyang Middle School\**

*Dept. of Foo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isting program of resident practice structured for female students in order to propose its restructuring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secondary school. A sample of 30 teachers charged a program of resident practice and 55 home economics teachers completed self report measures of resident practice program.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0 teachers to do in-depth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sistent with some previous research, there were some problems on facilities and program contents of resident practice. However, there were almost consistent with the required contents of program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ly for the program contents such as table settings, wearing a traditional clothing and arranging flowers.

A qualitative research showed that resident practice was equall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preparing the 21st century. Respondents proposed that the program contents should be focused on traditional propriety and etiquette for daily life. More especially, the data illustrated how importance of the resident practice program should be a mechanism to be a human-centered education. The problems of resident practice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also was considered. Qualitative answers were suggested for the question: How the resident practice program operates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without facilities of resident hall. Implications for resident practitioners, home economics educators, educational policy maker,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I. 서 론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접하는 최초의 장소로서, 그리고 인간 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화의 장으로서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체제의 급속한 변화는 가정생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가정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유영주, 1990; Wisensale, 1992).

특히 과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교육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 생활화 한데 비해 현대에는 학교교육의 발달과 가족제도 및 가족기능의 변화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대신 해 주는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생활교육과 거리가 먼 임시위주의 지식교육에만 치중해 있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은 올바른 사회 생활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정생활 교육의 부재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생활 교육의 중요성은 변화의 양상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 즉 지식 정보화와 개방화 추세가 급진전 될 것으로 예측되는 21세기를 전망해 볼 때 더욱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김지자 외, 1992).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가정생활을 바르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교육의 목표를 가진 가정과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어지는 것이다. 즉 가정생활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생활인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가정과 교육은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생활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요구된다.

가정과 교육에서 가정생활의 모델을 바탕으로 생활 교육을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활관 교육이다. 생활관 실습 교육이 중요한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결여된 가정생활교육을 체험시키고, 건전한 생활태도를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건전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을 마련해 주는 전인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호신, 1990; 장명옥, 1984).

중등학교의 생활관 실습은 1952년 창덕여고가 최초로 실시한 이래 1993년 4월 현재 전국 213개 고

등학교에서 생활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지역도 생활관 실습을 중시하여 1953년 부터 실시하여 왔고, 1994년 현재 도내 고등학교 생활관 교육 계획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 39개교, 남녀공학 5개교가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생활관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부응해 생활관 교육에 관한 연구도 수반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행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생활관 설치와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강성숙, 1989; 김정애, 1968; 박정식, 1985; 이호신, 1990), 생활관 실습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복길, 1971, 1974; 윤계구, 1984), 생활관 실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김혜선, 계선자, 1984; 전진숙, 1988; 정영숙, 1968), 생활관 실습 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김인수, 1972) 등의 연구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생활관 교육과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가지 제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효과도에 관한 것으로 생활관 실습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제적 경험과 인식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질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활관 교육이 제 6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응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구대상도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비교적 초창기 부터 꾸준히 생활관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실습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우기 그 동안 여학생에게만 가정교과를 가르쳐 온 전통적인 교육관에 큰 변화를 가져와 1995년 신입생부터 중학교에서는 남녀 공통필수가 되고 1996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남녀 모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과 교육과정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연숙, 1993). 따라서 지금까지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활관 실습 교육의 내용도 여학생의 프로그램에 남학생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녀가 가정생활을 공동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바탕이 되는 생활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교육내용의

이연숙(1993)과 Southers(1990)가 주장하듯이 가

정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학문분야의 축적된 이론과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 시켜야 한다. 프로그램의 재구조화란 Hughes(1994)와 Baldwin(1991)이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관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조화 하는데 있어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나 실무 교육 행정가의 평가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생활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학생, 부모의 평가도 프로그램을 재구조화 하는데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개정된 남녀 공수의 가정과 교육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관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조화 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관 운영실태
- (2) 생활관 실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
- (3) 남·녀 학생을 위한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 (4) 생활관 실습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 II. 생활관 실습에 대한 문헌적 고찰

생활관 실습이 실시되어 온 역사적 배경에 비해 생활관 실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생활관 설치와 운영 실태에 관한 현황 파악에 제한되어 있으며(김정애, 1968; 신영숙, 1976; 박정식, 1985; 강성숙, 1989; 이호신, 1990), 생활관 실습효과(정영숙, 1968; 김혜선, 계선자, 1984; 전진숙, 1988)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복길, 1971, 1974; 윤계구, 1984), 또한 생활관 실습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김인수, 1972) 등은 더욱 생활관 실습을 이해하는데 제한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생활관 실습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시대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재구조화를 위한 평가에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는 문제성을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생활관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가 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생활관 실습의 본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생활관의 시설, 설비를 위한 재정상의 문제, 학생들의 숙박실습을 전제로 한 생활관 담당교사의 애로점, 전담교사의 확보를 위한 행정상의 문제는 그 운영관리의 실효를 거두는데 난점으로 부각되어 있다(이호신, 1990). 생활관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강성숙(1989)의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 생활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한 위탁교육 실시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생활관 실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생활관 실습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실습 후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미비, 기존 시설의 노화, 분야별 교재기기 부족, 교육활동 등의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사의 문제로는 업무과중과 개인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김복길(1971, 1974)은 생활관 실습대상 학생들의 실습 전과 실습 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예절생활의 향상, 책임감, 협동심, 생활개신 의욕의 개발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신장 등 합리적인 가정생활인의 인성과 능력이 신장되었음을 보여 주었고 실습후에 가정생활에의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관 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다룬 연구가 없어 프로그램 효과도에 관한 일반화에는 문제점을 보인다.

신영숙(1974)은 생활관 실습의 효과는 학생들의 가족수, 형제간의 위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를 가져왔으며 앞으로의 생활관 실습내용은 가정에서 보다 더 범위가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인격적인 면의 향상을 위해 각 개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이주(1987)와 이민희(1988)는 생활관 실습이 생활태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관 특징을 살리는 교육내용의 구성이 필요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예절교육과 관련된 영역으로는 이성재(1979)가 집단생활을 중심으로 한 예절지도를 강조했고, 황인명(1980)은 생활관 실습을 통한 예절교

육으로 인간교육으로서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경은(1986)은 생활관 실습을 통한 집단지도는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에 또는 오리엔테이션의 한 방법으로 적합하고 집단지도의 실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생활관 실습의 지도내용 연구에서 제안된 것을 살펴보면, 생활관 실습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고 학생과 담당교사가 책임감 있게 실습에 임하며 실습교사는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호신, 1990). 그리고 타교사의 이해 및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생활관 실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전진숙, 1988).

김정애(1968)는 생활관 실습 내용을 협동정신 및 책임감 양성, 예절지도, 생활개선 능력 향상, 생활의 과학화 및 실천지도 등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지도내용으로는 가정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실습이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시키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습 후 평가는 가정과 성적에 반영되어서 교과와 일부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김인수(1972)는 실습상황 평가에 있어서 교사의 일방적인 평가를 피하고 실습생의 자기평가를 시도함은 실습생활의 자율성자주성자극성 배양에 기여되었다고 보며 단시일 내에 교정되기 어려운 언어 순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지도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미선(1985)은 생활관 실습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적 요청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담당교사들의 연수나 강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을 통해 형성된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진숙(1988)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적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이 학교교육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배려하고 지도 내용면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교육이 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활한 생활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공을 전담하는 전문부서의 설치가 요망되며, 자질있는 지도교사의 육성을 위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제도화 되어야 겠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생활관 실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관 시설과 운영에 대한 문교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생활관 시설이 없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생활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료제공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설치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활관 실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생활관 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교육이나 인격도야에 교육의 초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윤계구, 1984; 전진숙, 1988; 이호신, 1990).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현재 생활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30명, 일반 가정과 교사 55명, 일반 가정과 교사 중 과거에 생활관교육을 담당했던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과 심층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통한 생활관 교육 연구의 제한성을 보완하고 생활관 담당교사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의견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면접법은 생활관 교육을 실시한 교사 20명에게 직접 면담하는 방법을 실시하여 기록 및 녹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1차적인 자료 정리 후 부족한 내용은 전화 질문을 통해 보충하였다.

#### 2. 조사 도구

본 조사의 설문지는 강성숙(1989), 윤계구(1984), 정인순(1984)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것을 토대로하여 생활관 담당교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실습내용의 필요성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작성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가정교육 전공 교수와 생활관 담당교수 2인, 실습 담당교사 5인으로 부터 받았으며 필요도에 관한 문항은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생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92였고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90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활관 실습의 의견조사에 사용된 면접지는 선행연구(강성숙, 1989; 윤계구, 1984; 정인순, 1984)와 전문가 2명, 생활관 실습 담당교사 5명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면접지의 질문내용은 생활관 실습교육의 필요성, 목적, 효과, 어려운 점,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 가장 강조되어야 할 영역, 생활관 실습을 남녀 학생에게 실시하는데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것이다.

### 3. 자료분석

설문지로 수집된 자료중 일반적 특성, 생활관 운영실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남녀 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면접법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은 연구자가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소속학교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76.7%(23개교), 사립이 23.3%(7개교)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생활관 실습 담당 지도교사의 연령은 30세-35세가 43.3%(1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6세-40세가 26.7%(8명), 41세-45세가 13.3%(4명), 46세-50세가 10.0%(3명), 30세 미만이 6.7%(2명)의 순으로 생활관 담당교사는 교직경력이 5년 이상 되는 30대 교사가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 2. 생활관 실습의 운영실태

#### 1) 생활관 건물의 독립 여부

생활관 건물의 독립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면 학교 소속의 독립된 건물은 30개교 중에서 70.0%(21개교), 외부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23.3%

(7개교), 교실이용을 하고 있는 학교가 3.3%(1개교), 예절실 이용이 3.3%(1개교)로 나타나 학교 소속의 독립된 건물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독립된 생활관 건평은 40평 미만이 50.0%(15개교)로 가장 많았고, 60평 미만이 20.0%(6개교), 80평 미만이 10.0%(3개교), 또 80평 이상이 3.3%(1개교), 무응답도 16.7%(5개교) 있었으나 생활관 건평은 40평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소면적이 3평(주거면적 2평, 비주거면적 1평)일 때 11-20명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50-80평이 적당하다고 보면 40평 미만은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박정식, 1985).

#### 2) 생활관 실습 운영 방법

생활관 실습의 운영은 합숙운영으로 방과 후 실시하는 학교가 90.0% (27개교), 비합숙으로 방과 후 실시하거나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 중에 실시한다는 학교가 10.0%(3개교)이다. 따라서 충청북도에 있는 대분의 여자고등학교는 생활관 실습을 합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숙 운영이 실시되면 학생들의 늦은 귀가시간으로 인한 학교지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생활관 실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반면 담당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의 일부는 정규 교과 시간 중 생활관 실습 시수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3) 생활관 실습 대상

생활관 실습대상은 1학년이 13.3%(4개교), 2학년이 80.0%(24개교), 3학년이 6.7%(2개교)로 대부분 생활관 교육은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입학 후 새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친교의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는 입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생활관 교육을 비롯한 모든 행사(수학 여행 등)는 1학년에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3학년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상업학교인 경우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예절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학교에 부임되었을 때 이미 3학년에게 실시되고 있었으며 도중에 2학년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한 해에 2학년과 3학년을 겹치기로 교육해야만 대상

학년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학년으로 옮기지 못할 뿐 담당교사는 2학년을 원칙으로 하고 싶어한다.

#### 4) 생활관 실습 기간

생활관 실습 기간은 2박 3일이 76.7%(23개교), 3박 4일은 13.3%(4개교)로 2박 3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기간은 4박 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숙인 경우 1일이 3.3%(1개교), 2일이 3.3%(1개교), 3일이 3.3%(1개교)로 나타났다.

#### 5) 생활관 실습에 사용되는 기기

생활관 실습에 사용되는 기기로는 냉장고 86.7%(26개교), TV 83.3%(25개교), 전기밥솥 80.0%(24개교), VTR과 다리미 70.0%(21개교)의 순으로 나타났고 청소기는 46.7%(14개교), 세탁기·전축은 36.7%(11개교)이며 에어컨이 있는 학교 10.0%(3개교)로 나타났다.

합숙으로 생활관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합숙시 필요한 기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되는 기기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지은 생활관일수록 식기건조기, 탈수기, 에어컨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생활관 실습 내용

생활관 실습내용은 생활예절, 전통예절이 각각 100%(30개교), 식생활영역 96.7%(29개교), 심성도야 80.0%(24개교), 가족관계영역이 76.7%(23개교), 가정관리영역이 73.3%(22개교), 여가선용 70.0%(21개교), 주생활영역이 60.0%(18개교),의생활영역이 43.3%(13개교)로 나타났다. 각 학교에서는 예절교육(생활예절과 전통예절)과 식생활, 심성도야의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생활관에서 예절교육과 식생활, 심성도야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집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내용의 편성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대부분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인식시키고 있었고, 의생활 영역에서는 의복예절(한복 입는 법과 자세), 식생활에서는 식사준비와 식단에 따른 식품 점검, 주생활 영역에서는 주거관리와 생활관 관리(각 실 사용법 및 주의 사항), 가정관리 영역으로는 주부일지 기록, 생활예절에서는 직장생활예절, 대화 및 전화예절, 전통예절 영역에서는 평절, 큰절, 제사절하기, 지방쓰기, 상례절차, 5첩 반상차리기, 심성도야에서는 미래설

계에 대한 대화와 편지쓰기, 여가선용에는 꽃꽂이와 선물포장으로 지도하고 있다. 생활관 실습 중 강사는 주로 교장·교감·주임교사를 초빙하여 심성도야·예절교육·교양강좌·성교육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비합숙으로 방과 후나 수업중에 실시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식에법과 다도, 꽃꽂이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 7) 생활관 실습의 평가

생활관 실습의 평가는 해당학과 성적에 반영한다가 43.3%(13개교)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소감문 작성으로 자율평가함이 30.0%(9개교), 행동발달상황에 반영하는 학교가 10.0%(3개교)이고 평가는 하되 성적에 반영하지 않거나 94년부터 행동발달상황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16.6%(5개교) 나타났다.

### 3. 생활관 실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

#### 1) 생활관 실습 실시

생활관 실습 실시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가 70.0%(21개교), 실시하는 것이 좋다가 26.7%(8개교), 실시되지 않아도 상관 없다가 3.3%(1개교)로 나타났다. 면접을 통해서도 생활관 실습이 필요한 이유는 지식과 이론 위주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부재현상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교육 특히 기본 생활의 예절 교육과 전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골학생들에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부모는 가정교육을 학교에 미루고 학교는 부모에게 미루는 실정에서 가정생활 교육의 모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생활관 실습의 필요성을 가정생활 교육의 모델 제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관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이주(1987), 이민희(1988), 강성숙(1989)의 연구와도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실습 구성원

생활관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실습 구성원은 여러 반이 골고루 섞여서 하는 것이 좋다가 46.7%(14개교), 같은 반끼리 구성하는 것이 좋다가 40.0%(12개교), 다른 반과 섞여서 하는 것이 좋다가 13.3%(4개교)로 나타났다. 생활관 실습 구성원은 여러

반이 골고루 섞여서 하거나 같은 반끼리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관 지도교사의 역할

생활관 지도교사의 역할로는 상담자의 역할이 40.0%(12개교), 부모의 역할 33.3%(10개교), 교사의 역할 23.3%(7개교) 등 다양한 역할을 골고루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관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 상담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담당교사들은 합숙 훈련시 학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비중을 둔 것으로 사료된다.

4) 생활관 실습에서의 문제점

생활관 실습의 큰 문제점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러한 생활관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생활관 설치와 운영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결과가 실제 교육 행정이나 교육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 생활관 실습의 문제점

생활관 실습의 문제점	N(%)
주무교사의 업무과다로 피곤하다	26(86.7)
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상주교사의 개인 생활이 어려워 기피하고 있다	24(80.8)
실습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해서 담당교사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	23(76.7)
건물이 독립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22(73.3)
분야별 교재 기기가 부족하다	21(70.0)
과학적인 시설이 미비하고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었다	18(60.0)
예산부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16(53.3)
실습인원의 과다로 개별지도가 곤란하다	15(50.0)
초빙강사가 부족하다	15(50.0)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기피현상이 있다	14(46.7)
입소 전의 학부형, 학생, 교육행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	5(16.7)
장거리 통학생의 경우 통학이 곤란하다	5(16.7)
건물입대가 부족하다	1( 3.3)

4. 남녀 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생활관 담당 교사의 인식

남녀 학생을 위한 생활관 교육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는 <표 2>와 같다. 여학생을 위한 실습내용의 전체적인 점수분포를 보면 5점 척도에 가장 높은 점수인 쓰레기 처리는 4.67점이고 아이돌보기 영역이 가장 낮은 3.31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3점이 각 내용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보통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응답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전체 평균이 4.13으로 나타난 것은 각 내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높은 순위별로 쓰레기 처리(4.67)-식사예절(4.63)-한복입기(4.63)-절하기(4.60)-성교육(4.57)-단체생활예절(4.53)-환경위생-가정생활 예절-자기평가인 소감문 작성(4.50)-역할분담(4.47) 등이다.

남학생 실습 내용의 필요성은 성교육(4.79)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꽃꽂이(3.17)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성교육(4.79)-가정생활 예절(4.72)-식사예절 (4.69)- 역할분담-쓰레기 처리(4.62)-자기평가인 소감문 작성(4.59)-성역할 교육(4.55)-절하기(4.52)-단체생활예절(4.45)-명상의 시간(4.34) 순이다.

따라서 생활관 담당 교사의 여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의 필요성은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쓰레기 처리가 환경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매일 하고 있는 식사에도 태도와 분위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로 식사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돌보기 내용의 필요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도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바른 역할 수행을 위해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생활관 실습교육을 기능적인 실습교과로 인식하기 보다는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앞으로의 가정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생활관 교육은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수매체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남녀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습내용

생활관 담당교사		일반가정과 교사	
여학생 내용(M)	남학생 내용(M)	여학생 내용(M)	남학생 내용(M)
쓰레기처리(4.67)	성교육(4.79)	반상다루기(4.91)	성교육(4.69)
식사에절 한복입기(4.63)	가정생활예절(4.72)	쓰레기처리(4.76)	역할분담(4.64)
	식사에절(4.69)	식사에절(4.69)	식사에절(4.56)
절하기(4.60)	쓰레기처리 역할분담(4.62)	환경위생(4.67)	쓰레기처리(4.54)
성교육(4.57)		성교육(4.60)	환경위생(4.49)
단체생활예절(4.53)	소감문 작성(4.59)	단체생활예절(3.98)	성역할분담(4.44)
가정생활예절 소감문작성 환경위생(4.50)	성역할교육(4.55)	가정생활예절 몸차림(4.38)	소감문작성(4.36)
	절하기(4.52)		가정생활예절(4.33)
	단체생활예절(4.45)	한복입기(4.36)	식사준비(4.29)
역할분담(4.47)	명상의 시간(4.34)	식사준비(4.35)	한복입기, 분반토의 및 평가(4.25)
식사준비 한식상차림 양식상차림(4.43)	분반토의 및 평가 한복입기(4.31)	소감문작성(4.31)	
		몸차림(4.38)	몸차림 시간관리(4.20)
	식사준비 설것이(4.28)	시간관리(4.27)	
의사소통(4.38)		한식상차림(4.25)	단체생활예절 명상의 시간(4.18)
차대접(4.37)	환경위생(4.24)	분반토의 및 평가(4.24)	
설것이(4.36)	의사소통(4.22)	성역할교육 차대접(4.20)	의사소통(4.16)
성역할교육(4.27)	몸차림 청소(4.17)		절하기(4.15)
명상의 시간(4.23)		의사소통(4.18)	차대접 편지쓰기(4.13)
몸차림(4.21)	가전기기다루기 차대접(4.14)	절하기(4.16)	
분반토의 및 평가(4.20)		손님초대(4.13)	금전관리(4.11)
손님초대(4.17)	손님초대(4.10)	설것이(4.12)	양복입기(4.07)
시간관리(4.16)	금전관리(4.07)	청소 양식상차림(4.11)	손님초대 설것이(4.05)



양복입기(4.14)	시간관리 가정의례실습 편지쓰기(4.03)		
청소(4.13)		양복입기(4.09)	가전기기사루기(4.02)
각실사용법(4.10)		편지쓰기(4.04)	옷정리(3.96)
가정의례실습(4.03)	양복입기(4.00)	명상의 시간(4.02)	산책 및 체조(3.91)
반상다루기 가전기기사루기(4.00)	한식상차림(3.90)	가전기기사루기 금전관리(3.98)	한식상차림 아이돌보기(3.89)
	각실사용법(3.86)		
편지쓰기(3.97)	옷정리 가계부정리(3.79)	가계부정리(3.95)	청소 가정의례실습(3.84)
꽃꽂이 금전관리(3.93)		가정의례실습(3.84)	
	양식상차림(3.76)	산책 및 체조(3.82)	레크레이션(3.80)
선물포장 옷정리(3.87)	노인돌보기(3.68)	각실사용법 옷정리(3.80)	가계부정리 양식상차림(3.76)
	레크레이션 산책 및 체조(3.66)		
가계부정리(3.83)		아이돌보기(3.71)	노인돌보기(3.69)
레크레이션(3.70)	아이돌보기(3.64)	꽃꽂이(3.65)	다림질(3.65)
산책 및 체조(3.60)	반상다루기 선물포장(3.52)	노인돌보기 선물포장(3.58)	빨래하기(3.60) 각실사용법(3.58)
신문잡지정리(3.47)			
다림질(3.40)	다림질 신문잡지정리(3.45)	레크레이션(3.55)	반상다루기(3.53)
노인돌보기(3.37)		다림질(3.49)	신문잡지정리 선물포장(3.33)
빨래하기(3.33)	빨래하기(3.39)	빨래하기(3.42)	
아이돌보기(3.31)	꽃꽂이(3.17)	신문잡지정리(3.38)	꽃꽂이(3.25)

2) 일반 가정과 교사의 인식

일반 가정과 교사가 인식한 여학생의 교육내용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반상다루기(4.91)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신문잡지 정리(3.3)이다. 필요성의 순서는 반상다루기(4.91)-쓰레기 처리(4.76)-식사예절 (4.69)-환경위생(4.67)-성교육(4.60)-단체생활예절(4.44)-가정생활예절(4.38)-몸차림(4.38)-한복입기(4.36)-식사준비(4.35)-자기평가인 소감문 작성(4.31) 순이다(표 2).

남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의 필요성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성교육(4.69)이고 꽃꽂이(3.25)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생활관 담당교사와 일치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요성의 순서는 성교육(4.69)-역할 분담 (4.64)-식사예절(4.56)-쓰레기 처리(4.53)-환경위생(4.49)-성역할교육(4.44)-자기평가인 소감문 작성(4.36)-가정생활예절(4.33)-식사준비(4.29)-한복입기(4.25)-분반 토의 및 평가(4.25) 등이다.

일반가정과 교사의 여학생과 남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본 결과 역할분담, 다림질, 한식상차림, 양식상차림, 반상다루기, 꽃꽂이, 선물포장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역할분담, 다림질, 선물포장을 제외하고 생활관

담당교사와 일치하는 편을 보이고 있다.

〈표 3〉 남녀 학생 실습내용의 비교

생활관 담당 교사

구분 내용	여학생	남학생	t값
한복입기	4.63(0.49)	4.31(0.60)	3.02**
한식상차림	4.43(0.68)	3.90(0.67)	3.13**
양식상차림	4.43(0.68)	3.76(0.99)	2.96**
반상다루기	4.00(0.74)	3.52(0.74)	2.39*
꽃꽂이	3.93(0.58)	3.17(0.85)	3.86***

일반 가정과 교사

구분 내용	여학생	남학생	t값
역할분담	4.29(0.83)	4.64(0.62)	-3.21**
다림질	3.49(0.96)	3.65(0.95)	-2.42**
한식상차림	4.25(0.70)	3.89(0.83)	3.36***
양식상차림	4.11(0.74)	3.76(0.84)	3.41***
반상다루기	4.91(0.82)	3.53(0.79)	3.74***
꽃꽂이	3.65(0.75)	3.25(0.78)	4.97***
선물포장	3.58(0.85)	3.33(0.82)	2.81**

\*p<0.05 \*\*p<0.01 \*\*\*p<0.001

3) 생활관 실습교육에 대한 교사의 통찰

(1) 생활관 실습의 목적

생활관 담당교사가 서술한 생활관 실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실습을 통하여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른다.
- ② 인간생활의 기본 바탕인 예를 생활 습관화 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예절을 배우게 된다.
- ③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정신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 ④ 대화를 통하여 심성을 도야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게 한다.
- ⑤ 교육 과정상의 지식-기능-생활의 연계를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⑥ 가족의 역할 분담을 수행해 봄으로써 가족 구성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족 구성원끼리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 ⑦ 의식주 관리를 체험케 함으로써 가정관리를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생활관 담당교사는 생활관 실습의 목적을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와 의식변화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생활관 교육을 통해 얻은 생활 예절 및 전통 예절과 가정관리 방법 등을 앞으로의 가정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 나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생활관 실습의 효과

생활관 실습의 효과는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급 학생들 중 실습을 마친 학생들과 실습을 받지 않은 학생들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상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내면의 변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관 실습이 끝난 다음 소감문을 받아 보면 자기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다른 효과로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기 역할 분담으로 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기본 예절과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자신과 지역사회 나아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가사 분담으로 가사노동의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으며, 생활을 직접 계획, 실천, 반성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가정 생활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창의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활관 실습의 다른 효과로 학생들이 기본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갖는데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효과 중에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취미생활 및 여가 활용 방법을 습득하여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실습 후 가정생활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교육 효과가 크다는 진천생활관 교육여고생의 소감문 분석 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황재숙, 1994).

(3) 생활관 실습의 어려움점

담당교사가 제시한 생활관 실습의 어려운 점은

대부분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관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을 들 수 있다. 면접을 통해서 나타난 생활관 실습의 어려운 점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을 들고 있다. 시간일정에 쫓겨 학생과 교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힘들고, 적은 실습비로 교사 나름대로 식사준비 및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질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교수업과 생활관 실습을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 식의 실습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방과후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정 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학생 개인의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식사 준비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무리 없이 진행하려면 교사나 강사가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미리 씻어 솥에 압혀 준다거나, 고깃국을 끓일 때 고기를 미리 고아 놓는다거나.]

그리고 생활관 강사에 대한 경제적, 신분상의 보장이 없이 실습교사의 부당한 대우로 실습교사가 실습을 기피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강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사 자격을 가진 학사 출신인데도 육성회비에서 강사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교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사료도 일용잡급직에 해당되는 비용이 일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들 꺼려합니다.]

또 강사를 구해도 생활관 지도 경력이 거의 없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교육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청 단위로 전문 생활관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 생활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 강사를 제공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교사로서의 경력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과 보조 교사나 여교사의 분만 대치 강사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실습시기와 방법에도 어려움이 많은데다 생활관 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타교사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 전개되므로 타교과 선생님들 의식도 교실 안에서의 수업은 중요하지만 교실 밖의 수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학생들도 생활관 실습 교육이 정규 교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심지어는 자율학습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담당 교사 외에는 생활관 실습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생활관 실습 교육을 정규 과목에 넣어서 예를 들면 가정 4시간 중 1시간은 생활관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각 과목간에 연계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학교 내에 설비된 시설과 기물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교육효과가 적고 독립된 생활관 건물이 필요하며, 교사의 사생활 보장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생활관 담당교사나 강사 등 1-2명이 지도하게 됨으로 여려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부족으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생활관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담당 지도 교사에 의하여 계획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 계획에도 애로 사항이 많으므로 교육청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계획 수립 및 교육이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절차 복잡, 감사, 관리자의 문제)와 유사시 책임 전가(화재, 도난, 학생관리)도 생활관 실습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하였다.

(4) 생활관 실습에서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

한 담당교사는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여자중등학교에서 많은 생활실습관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생활관 교육 담당자를 위한 재교육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교육은 커녕 담당 교사들끼리의 모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교육을 위한 전문 도서도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백과 사전이나 예절에 관한 책자, 기타 꽃꽂이 책 등 각 분야에 관련된 책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1991년 3월에 우리 도(道)에서 지역 중심 종합 생활관이 생기면서 '생활관 수련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 많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은 생활예절(식사예절, 인사하기,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 올바르게 통일된 전통예절(반상예법, 차례절차, 다도, 절하기 등), 심성교육이나 정신교육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개발, 가족관계의 영역 등에 재교육이 필요하다

고 했다. 그리고 교육 자체의 목적이나 효과가 너무 추상적이고 가끔씩 생활관 교육이 실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통하여 구체적인 생활관 교육의 목표나 방향을 제시해 주어 필요성에 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어느 교사는 어떤 특정한 영역보다는 생활관 실습의 실제 모델을 통한 재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재교육시 어떤 특정한 영역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교사들의 일반 연수 과정으로 생활관 실습 교육을 도입하여 교사들에게 실제 생활관 실습 교육을 재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 재학시 실습했던 것만 가지고 학생 교육에 임하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5) 생활관 실습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영역  
생활관 실습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생활교육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보다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화된 의식이 행동으로 내면화 될 수 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의 올바른 인성교육, 원만한 인간관계유지 및 협동하는 태도기르기, 생활속의 기본예절교육, 건전한 가치관 함양교육 등을 강조하였으며 현장 교육의 교과과정 중 생활교육과정으로 생활관 실습의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영역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사(家事)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원간의 역할과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대의 핵가족 제도 속에서 가족원간에 함께 하는 생활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원간의 의사 소통의 기회 부족과 역할 상실 빈도가 늘어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독립된 영역으로 여겨지는데 비해 실제의 교육은 Video-tape를 보거나 토론 형식을 취해 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성교육에 합당한 학습자료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생활관 실습의 남녀 공통이수에 대한 의견  
모든 생활관 담당교사는 교육과정 개편과 시대적 상황이 생활관 실습 교육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활관 교육이 남녀학생에게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서술하고 있다.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은 가정 아닙니까? 특히 오늘날은 가정 내에서 남녀 역할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가사 노동 역시 부부가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생활관 실습 교육은 여학생에게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남녀 학생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관 실습 교육은 건전한 가정 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습과 대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가정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시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차 교육과정도 기술과 가정 교과목이 남녀 공통 이수 과목으로 변화였으므로 생활관 실습 교육 역시 남학생에게도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성역할을 고집한다면 남성에게 불리하여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일찌기 했어야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성차별 의식의 개선, 남녀간에 협동하는 태도 함양, 성범죄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관 실습을 남녀 공통으로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실습 내용의 선정, 인식의 부족(학생, 학부모, 타교과 교사), 숙식의 문제, 지도 교사의 문제(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진다고 여겨진다.

(7) 남녀 공통이수시 강조되어야 할 영역

이 문제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진술은 프로그램 내용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남녀 공통시 강조되어야 할 영역은 성교육(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성심리, 부모됨의 의미), 기본생활예절(일상생활에서의 예법: 식사예절, 몸가짐, 인사법, 언어사용), 전통예절(제례, 절하기, 한복입기), 가정의 소중함과 역할 분담의 인식(가정에서의 위치와 책임, 성역할의 이해, 가족간의 예의 및 상호존중하는 태도기르기), 건전한 가치관 함양교육 등이다.

[올바른 성교육 및 심성 도야 학습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① 남녀 학생 필히 성(性)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 주며, 책임감을 심어 주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교육과정.

- ②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정립해 보는 기회를 제공.
- ③ 물질 만능에 젖어 있는 정신적 부패에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심어 주기.
- ④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 갖추기.]

결론적으로 생활관 담당 교사들은 생활관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전인교육과 생활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활관 실습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생활 교육의 매체인 생활관 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생활관 실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활관 실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관 실습이 기능 교육에서 벗어나 가치나 태도 교육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담당 교사들은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나타내고 있다. 교사들의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과 생활관에서 강조되는 영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시대변화에 발맞추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에 관해서도 많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관 실습의 운영실태에서 대부분 교내에 독립된 생활관 건물이 있고 생활관 운영방법은 전반적으로 합숙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관 건평은 40평 미만이 가장 많고 교육 대상은 주로 2학년 이었고 실습기간은 2박 3일이 가장 많았다. 생활관 실습 내용은 전통예절과 일상 생활예절을 포함한 예절 교육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고 다음으로는 심성도야, 가족관계, 가정관리영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생활관 담당 교사의 생활관 실습 실시에 대한 의견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생활관 지도교사는 상담자, 부모님, 선생님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생활관 실습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무교사의 업무과다이고 실습전담 상주 교사의 개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습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해서 담당 교사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분야별 교재 기기 부족, 기존시설의 노후,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생활관 담당교사는 여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은 쓰레기처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아이돌 보기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남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은 성교육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꽃꽂이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생활관 담당교사의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실습 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복입기, 한식상차림, 양식상차림, 반상다루기, 꽃꽂이 등을 제외한 36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일반가정과 교사의 여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반상다루기이고 낮은 점수는 신문잡지정리이다. 남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성교육이고 꽃꽂이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생활관 담당 교사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가정과 교사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실습 내용은 역할 분담, 다림질, 한식상차림, 양식상차림, 반상다루기, 꽃꽂이, 선물포장과 같은 7개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는 남녀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5. 생활관 담당 교사와 일반 가정과 교사가 남녀 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내용은 여학생을 위한 실습 내용의 절하기에서 생활관 담당 교사가 일반 가정과 교사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환경 위생 영역에서 일반 가정과 교사가 생활관 담당교사 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6. 생활관을 담당한 교사가 생활관 실습에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관을 담당한 교사는 모두 생활관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습 목적을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와 의식 변화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관 실습의 효과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기본 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줄 알고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갖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2) 생활관 실습의 어려운 점은 수량적 연구와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관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을 들 수 있다.

(3)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생활예절(식사예절, 인사하기,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 올바르게 통일된 전통예절(반상예법, 제례절차, 다도, 절하기 등), 심성교육이나 정신교육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개발, 가족관계의 영역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4) 생활관 실습에서 가정생활의 경영에 필요한 기능적 교육보다는 의식전환의 필요성 및 변화된 의식이 행동으로 내면화 될 수 있는 정신적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 올바른 심성교육,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및 협동하는 태도 기르기, 생활 속의 기본예절교육, 건전한 가치관 함양 교육 등을 강조하였으며 일선 교육의 교과 과정 중 생활 교육 과정으로 합당한 학습자료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모든 생활관 담당교사는 교육과정 개편과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의 교육으로써 생활관 실습 교육을 남녀학생 모두에게 꼭 실시하여야 할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관 교육을 남녀 학생에게 공통으로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은 실습 내용의 선정, 인식의 부족(학생, 학부모, 타교과 교사), 숙식의 문제, 지도 교사의 문제(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6) 남녀 공통 이수시 강조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실습 내용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남녀 공통 이수시 강조되어야 할 영역은 성교육(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성심리, 부모됨의 의미), 기본생활예절(일상생활에서의 예법, 식사예절, 몸가짐, 인사법, 언어사용), 전통예절(가정에서의 위치와 책임, 성역할의 이해, 가족간의 예의 및 상호존중하는 태도기르기), 건전한 가치관 함양 교육 등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생활관 실습 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미래 연구자는 담당교사 뿐 아니라 생활관 교육을 받은 학생, 부모, 가정과 교육 전공자 등의 의견을 종합

한 연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남녀 학생을 위한 생활관 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생활관 담당교사는 교육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실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습 내용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관 실습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 담당자의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생활관 실습 내용은 생활관 시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생활관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도 가정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습 내용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성숙(1989), "생활관 실습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복길(1971), "가정관리 실습지도와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가정학연구 제4집, 126-144.
- 김복길(1974) "가정관리 실습관에 있어서의 학생지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2호, 39-60.
- 김이주(1987), "일반계와 실업계 여고생의 생활관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수(1972), "교육대학 여학생들의 생활관 실습 결과 검증에 관한 연구", 부산교대 연구보고서 제8권 제1호, 1-12.
- 김정애(1988), "가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7호, 118-119.
- 김지자·남승희·최운열·곽노의·김혜성(1992),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양서원.
- 김혜선·계선자(1984), "생활관 실습교육 현황과 실습효과에 관한 연구", 충남대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연구지 제7권 제2호, 154-168.
- 박정식(1985), "경남지역의 중등학교 생활관 설치 운영실태 및 문제점",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영숙(1974), "가정대학 생활관 교육 실습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주(1990),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계구(1984), "여자가등학교의 가정관리 실습 교

- 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은(1986), “집단지도가 여고생의 생활지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션·이정우(1985), “가정관리 실습 후의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제3권제2호, 1-13.
- 이민희(1988), “생활관 운영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재(1979), “기본예절 실천과 행동질서의 확립”, 교육연구 128호, 116-120.
- 이연숙(1993), “중·고등학교 가정관리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가정과교사, 전공교수의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3호, 47-62.
- 이호신(1990),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관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명욱(1982), [가정관리학] 서울 : 교문사.
- 장명욱(1984), “새세대 생활관 교육의 방향”, 새세대생활관 준공 심포지엄, 새세대육영회.
- 전진숙(1988),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생활관 교육 효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숙(1968),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관 실습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도지정 연구학교 연구보고서.
- 정인순(1984),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인명(1980), “고등학교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재숙(1994) “중등학교 남녀학생의 공수를 위한 생활관 실습교육의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ldwin, E.E.(1991), The home economics movement : A new integrative paradigm, *Journal of Home Economics*, winter, 42-49.
- Byrd, F.M.(1990), Home economics : Reflections on the past, vis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43-46.
- Hughes, R., Jr(1994), A framework for developing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vol.43, 74-80.
- Southers, C.L.(1990), A parenthood education model : Building on our intellectual found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winter, 10-15.
- Wisensale, S.K. (1992), Toward the 21st century : Family change and public policy, *Family Relation*, vol 41, 417-422.